

제24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임시회)

# 본 회 의 회 의 록 (개회식)

해운대구의회사무국

2019년 3월 20일 (수) 오전 11시

## 제24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임시회) 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개회사

1. 폐식

(사회 : 의사팀장 박현주)

### ○의사팀장 박현주

(11시 01분 개식)

지금부터 제24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이명원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순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 240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4월의 꽃인 목련은 우리 구청사에 벌써 3월인데도 흐드러지게 피어있고, 식목일 행사를 3월 6일에 하면서 지구의 기후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3.1 만세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 3월 우리 구의회는 뜻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8대 의회 처음으로 실시했던 공무국외연수에서 우리 의회는 외국에서는 최초로 소녀상을 설치한 미국의 글렌데일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의향서를 교환하고 교류 협력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3월 13일 글렌데일시 시장이 직접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우호 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해운대구의회 공무국외연수의 중간 결과물로서의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양 도시 간 우호 협력을 통해 소녀상으로 상징되는 우리나라의 아픔이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작은 시작이 될 것이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2 (제240회-개회식)

우리 의회는 이미 글렌데일시 중앙도서관에 우리나라 도서를 기증한 바 있고, 해운대교육청과 새마을회와 함께 평화의 소녀상 응원 편지 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양 기관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호 협력도시 협약 체결을 위해 방문한 자례시난안 시장 일행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홍순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240회 임시회는 조례안 및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부산시의회에서는 27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해운대에 있는 LCT를 위시한 부산시 5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불요불급[不要不急]하고 낭비적인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철저하게 심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 심의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협조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미세먼지가 우려스러운 요즘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팀장 박현주

이상으로 제240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폐식)